

## 교회소식

###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TS TV방송설교(채널97-1) 목 오후 1:00 ~ 1:3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 ◎ 31일 예배 회복의 날 안내 ◎

- \* 모든 예배를 종전대로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드립니다.
- \* 찬양대는 정해진 소수의 인원만으로 준비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 \* 주일 중식은 봉사자들을 위한 식사만 준비합니다(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 \* 주일1부예배, 화요중보기도, 수요목자교육, 목요전도, 금요목장모임을 시작합니다.
- \* 주일오후예배는 새롭게 성경읽기예배로 시작 합니다.

### [모임]

1. 당회 - 오늘 주일3부예배 후 / 당회실
2. 안수집사회 - 오늘 주일오후예배 후 / 미션홀

### [알림]

1.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 31일(주일)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킵니다.
2. 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 홈페이지(www.youtube.com)에서 대전중부교회 검색

### [담임목사 동정]

1. 대전시 국회의원당선자(7명) 감사예배 설교 - 29일(금) 오전7시 / 라온호텔

### 섬기는 분들

◆월요당직 : 김명순 전도사

담임목사 조상용	원로목사 김주원	시무장로 김덕현	배정만	홍순영	이원명	이대영
부목사 고윤철	오상욱	김종명	송경호	정기조	윤종명	황덕순
전도사 김명순	조정욱	전상순	김수종	임인성	전용주	
교육전도사 정선교(고등)	지서광(중등)	현기훈(초등)	원로장로 이인창	편봉달	정태용	최영일
	안성민(유년)	이정아(유치)				윤재룡
직원 박연희(사무)	김현철(관리)	안철호				
어린이집 주경애(원장)	김경희	권영은	박선희	김효진	은퇴장로 김영한	장순석
					김기성	권소열
					송은규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술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Since 1958. 09. 15

2020. 5. 24 (NO. 62-21)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중부교회

담임목사 조상용

###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 8대 사역

1. 예배 사역
2. 목장 사역
3. 가정 사역
4. 기도 사역
5. 제자 사역
6. 미래 사역
7. 복지 사역
8. 전도 사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 주 일 예 배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 입례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 신앙고백	사도신경
회중찬양	악할 때 강함되시네 / 세상 흔들리고
참회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송경호 장로(2부) / 정기조 장로(3부)
찬양	예루살렘(2부) / 할렐루야(3부)
성경	막 4:35~41

**예수님의 기적(19) :**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

조상용 담임목사

헌금	432장
광고	인도자
* 공동체고백	사명선언문
* 폐회송	우릴 사용하소서
축도	조상용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안내

주일4부 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본당)	수요예배	1부/오전10:00(본당) 2부/저녁7:30(중예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양: 드림 찬양단</li> <li>* 기도: 김종렬 형제</li> <li>* 설교: 김종명 목사</li> <li>* 성경: 눅 16:19-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양: 주찬양 찬양단</li> <li>* 기도: 이율성 집사</li> <li>* 설교: 고윤설 목사</li> <li>* 성경: 느 1:1-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앙고백: 사도신경</li> <li>* 기도: 이영자b 집사(1부) 손부영 집사(2부)</li> <li>* 설교: 김종명 목사</li> <li>* 성경: 창 2:7</li> </ul>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회복을 위한 준비”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본당)
히브리서 - 담당 교역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양: 아이노스 찬양단</li> <li>* 설교: 조상용 목사</li> </ul>	

## 다음주 봉사안내

주일오전	1 부	양희찬 집사	안내위원	4 여 전 도 회	
	2 부	정기조 장로	식당봉사	금 주	
	3 부	윤종명 장로		내 주	삼호, 현대, 용운 남3-5, 3-6
주일새벽	금 주		주차위원	나승문 김상복 김종현 김대순 박노태 박대수 이길천 이종규 임춘수	
	내 주	이종욱 권사	차량운행	2호/ 이본구 집사 010-8281-3779	
주일오후	내 주	임춘화 집사		3호/ 김동윤 집사 010-6804-5574	
	1 부	정윤옥 집사		권소영 장로 010-8070-3533	
수요예배	2 부	강은자 집사		4호/ 유창웅 집사 010-6407-8515	
				5호/ 이율성 집사 010-9033-5338	
				6호/ 채기병 집사 010-5579-9103	
				임인성 장로 010-9577-9500	

## 예배시간 안내

주 일	1부 예배	오전 7:00	유아부	오전 11:00	수 목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9:00	유치부			2부 예배	저녁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4부 예배	오후 2:00	초등부				
	베데스다	오전 9:00	중등부	오전 9:00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00
	오후예배	오후 4:00	고등부				
			청년회	오후 2:00			

# 기도 게시판

##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월 (25일)	최영희
화 (26일)	송정숙
수 (27일)	심윤중
목 (28일)	고윤설 김명순
금 (29일)	임현성
토 (30일)	황덕순 이종욱
주일 (31일)	유창웅 김정식 정영자 안철호 이영숙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 중보기도사역

요일	기도 내용	담 당	시 간	장 소
월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한혜숙 권사	오전 11시	기 도 실
화	교회, 선교, 중보, 개인을 위해	이영숙 권사	오전 10~12시	기 도 실
수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심윤중 권사	오전 11~12시	기 도 실
목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시~10시	본 당
금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이종욱 권사	밤 12시~4시	한 나 방
주 일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성희 권사	오후 2~3시	기 도 실
119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홍선덕 권사	오전 10~11시	기 도 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119 문 자	문자 전송 시	처소에서

##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 게시판

## 주간 성경읽기

날짜	24일(주일)	25일(월)	26일(화)	27일(수)	28일(목)	29일(금)	30일(토)
성경	욥36-38	욥39-41	욥42-시2	시3-5	시6-10	시11-13	시14-16

## 새가족 소개

NO	이름	연락처	인도자	바나바	교구	전도회
9	오현정	010-5749-7226	김옥희a	김옥희a	3	1여

# 모임안내

## 새가족 성경공부

구분	시간	담당자	기간	장소
새가족반	2, 3부 예배 후	오상옥 목사	4주	당회실

## 평신도 신앙훈련

구 분	내 용		기간	사 역 목 표	담 당 자
신앙성장 과 정	학습·세례 교육		3주	신 앙 교 육 강 화	담 당 자
	교 리 생 활 공 부		1년	1 학 기 : 교 리 편 2 학 기 : 생 활 편	담 임 목 사
	가 정 사 역 학 교		13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 혜 경 사 모
	제 자	제 자 반	1년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교 구 목 사
	훈 련	사 역 반	1년	사 역 자 양 육	담 임 목 사
	목 자 훈 련		매주	목 자 훈 련	각 교구 교역자
	양 육 1 단 계		5주	공 동 체 를 통 한 하나님 경험하기	담 당 자
	회 복 수 양 회		1박2일	내 적 치 유	담 당 자
	양 육 2 단 계		8주	성 숙 한 성 도 의 삶 경 험 하 기	담 임 목 사
	중 보 기 도 학 교		6주	기 도 헌 신 자 훈 련	담 당 자
L M T C	평신도 선교훈련		24주	단기선교 준비 과정	담 당 자
청춘 대학	다양한 교육활동		4년	노년의 행복한 삶	조정옥전도사
아기 학교	주간 아기 교육		12주	신앙적인 전인교육	김명순전도사
목요 전도	전도훈련·지역전도		매주	지 역 복 음 화	고 윤 설 목 사

## 5월 행사 안내

1일(금) /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

10일(주일) /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11일(월)~12일(화) / 동대전제일노회 정기노회

## 찬양대

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새벽	시온	이종운	김예원
주일 1부			
주일 2부	예루살렘	이규인	피/ 임지희 오/ 문정애
주일 3부	할렐루야	장지이	피/ 김영미 오/ 임형선

구분	반주자
주중새벽	이성희 김경희
주일오후	강주연
수요 1부	문정애
수요 2부	김경희

# 교회생활 안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주일학교, 주일오후예배, 수요일예배(1,2부), 목요일 성기도회는 진행합니다(주일1부 제외).

## 1. 예배당 입장 시에

- (1)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꼭 착용해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2) 1층 로비에서 체온측정과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성도들과의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해주시고, 기침시에는 옷깃으로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식당운영, 찬양대, 화요중보기도회, 목요전도대, 목장모임은 당분간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4. 화장실쪽 출입구는 사용을 중지하오니, 1층 현관 로비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에 출타를 하였거나 가족중에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후·노약자·영유아 경우, 또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주일 말씀으로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6. 현재 교회는 주 1회 토요일마다 각 예배실과 교육시설, 그리고 모든 시설에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도 안전한 교회생활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마음을 모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교 및 돕는 기관

### ♣ 파송선교사

- 김경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 · 싱가포르
-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민 사역(부천)
-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웅) / 태국
-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 버여, 총통채책 / 몽골
- 박춘국, 김은영(주현, 하현, 성현) / 일본
-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온) / 베트남
- 김현숙 / 태국

### ♣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

- 천강민 / 몽골 · 장석현 / 태국 · 이수현 / 필리핀
- 김재정 / 태국 · 김도형 / 태국 · 장천득 / 캐나다
- 임태호 / 태국 · 박정선 / 태국 · 오세연 / 남아공
- 이성율 / 키르기스스탄 · 총회세계선교회(GMS)
- 신태팔선교회(SMI) · 일본아가페선교회(AMJ)

### ♣ 후원교회 및 기관

- 세종중부교회 · 기독교임즈
- 가야곡중부교회 · 총신대학교
- 옥천각계교회 · 대전신학교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동대전중학교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 가양중학교
- 두란노아버지학교 · 명석고등학교
- 군선교연합회 · 내륙흥 노인회
- 주바라기선교회 · 가양2동 노인회
- 대전기독교방송 · 신도 노인회
- 대전국동방송 · 더퍼리 노인회
- 대전CTS방송 · 비래1,2 노인회
- 내봉 남,녀 노인회

# 지난 주 말씀 요약

## 예수님의 기적(18) :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눅7:11-17)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나인이라는 곳에 한 과부의 아들의 장례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런데 이 기적은 어느 누구하나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바도 구한 바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생명사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병든 자가 고침 받고 회복되었으며, 귀신들린 자가 온전케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생명사역에 힘써야 한다. 살리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 예수님의 3가지 행동(saw, touched, gave)을 통해 생명사역의 방법을 배워보자.

### 1. 공허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과부를 공허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까지 뒤틀리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과부의 슬픔을 목격하신 예수님은 이런 비통함과 연민을 느껴셨던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시선이였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허의 눈으로 바라보셨기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의 눈,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면, 그 앞에서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다. 교회는 공허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곳이다. 사람 하나 세워놓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모두 죽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눈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공허의 눈,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자. 그 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 2.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14절上)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장례식 행렬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다. 이것은 그때 장례를 보면 시체와 접촉하는 즉,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데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조차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삶의 방식이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개의치 않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다. 그 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자!

### 3. 소중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

(14절下)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청년아 일어나라”는 말씀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인간의 몸에 생명을 불어 넣어준 생기다. 예수님은 지금도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살아난 아들을 다시 그의 어머니에게로 돌려보내 주셨다. 예수님은 과부의 필요를 더 잘 사시고 그 아들을 과부에게 돌려보내 주었다. 자기 어머니를 돌보도록 하신 것이다. 죽은 아들을 다시 돌려받게 된 과부는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아마 그녀가 받은 위로는 그동안 고통당한 시간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죽은 아들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진 과부까지 살려낸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자!

#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9일(금) 찬 524장 히 8:1-5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곧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가장 큰 영광을 누리며 하늘 성소를 섬기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 땅에 지은 장막이 하늘 성소의 모형이자 그림자이듯이,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감당한 직무 역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무효화되었으나, 새 언약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10~12절 말씀에 따르면 새 언약은 심비에 새겨지며(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고(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제공하며(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아라), 완전한 죄 용서를 약속합니다(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30일(토) 찬 370장 히 8:6-13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탁월하신 것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한 옛 언약은 죄인이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언약, 즉 새 언약은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완성되었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항상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함으로 매번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되어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단번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에 언약을 기록하셨고 예수님으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 나의 가정과 직장에 나타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31일(주일) 찬 421장 히 9:1-10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1, 8절). 결국 첫 언약으로는 영원히 온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온전히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흠이 없으시기에 이 같은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또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일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가 가진 능력을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향기로운 예물

## 십 일 조

강영미 강용주(김경희) 강희주(김종분) 구회선(박지숙) 권대영(한인숙) 김기성  
김길주(박순자a) 김덕현(하점순) 김덕현 김미숙(김장식) 김석순 김순희b(이동주)  
김연수 김옥단 김인숙 김정례 남궁예순 박노태(최영란a) 박용일(김순희c) 박정환  
박태식(윤진선) 백규현(양미숙) 손부영 손정숙 송순례 심윤중 오복순 오상옥(김진남)  
유영삼(권민숙) 육종권 윤동근(신영순) 이은진(김대용) 이종훈 이지연 이춘자a  
이형두 이해정 장은혜 정구훈(김순옥b) 정선교(강은지) 정숙남 조규연(서정순b)  
주정숙 최영란b(김영서) 최영애 한인숙 한춘녀 홍선덕 황덕순(김기환)  
황명동(이후남, 황훈) 무명

## 감사헌금

고윤설(박혜란) 권상희 김다빈 김덕현(하점순) 김두경(김경선) 김영준 김영천(남정혜)  
김예화 김옥란a 김정례 김정임 김형민(윤혜성) 김혜자 박명환 박정자b 박종보  
서숙자 서은경 서정순b 안장현 양명자 오상옥(김진남) 유창웅(김정식) 윤정옥  
이여진 이영숙c 이원선 이종옥 정경희 정숙남 조규연(서정순b) 조상용(김혜영)  
조정식(김미자b) 최영란b 최정숙 최진수 황인숙 무명6

## 선교헌금

강용주(김경희) 강희주(김종분, 윤상희) 구회선(박지숙) 권대영(한인숙) 권상희 권소열  
김기성 김다빈 김덕현(하점순) 김동춘(유덕자) 김미자 김석순 김순옥b  
김영천(남정혜, 김세현, 김예현) 김옥단 김재범(박은정) 김정례 김종근(이순옥, 김영민)  
김종훈(송순현) 김홍구 김홍섭(이은원, 김효정, 김의정) 김효수(김주영) 남궁예순  
노광숙(노소담) 박건희 박노태(최영란) 박미혜 박민수(박정숙) 박민지 박병란 박상규  
박용일(김순희) 박정자b 박정환a 박제순 박종권(주정화) 백규현(양미숙) 송경신  
송순례 양주선 양홍순 오상옥(김진남) 유덕자 유은정 유창웅(김정식) 유춘성(황안순)  
육종권 윤동근(신영순) 윤창수(김경순) 이대성(송미옥) 이상우(이성희) 이지영 이창익  
이형두 정구훈 정기조(이종옥) 정상희 정숙남 정정이(하경철) 조성일(유은정)  
조정옥(노정남) 주정숙 한춘녀 현성주 홍영숙 황명동(이후남, 황훈) 4남전도회  
5여전도회

**부활감사헌금** 김정례 박연희

**장학헌금** 윤재룡 전용주

**온라인 헌금계좌: 131-019-689782 [신협-대전중부교회]**

**장학금 후원계좌: 301-0072-3936-51 [농협-대전중부교회]**

##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5일(월) 찬 484장 히 6:13-20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 성장이 정체된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질책하기도 했지만, 성도들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9절). 이런 그들에게 저자는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말고, 오래 참을 것을 권면합니다(12절).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때를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약속에 맹세까지 더하셨습니다(15~17절).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실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신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과 인내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서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해 일을 그릇되게 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인내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6일(화) 찬 218장 히 7:1-10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익숙한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재물의 십분의 일을 나눠 줬다고 언급합니다(1~3절). 유대 사회에서 십분의 일은 레위 지파의 생업을 책임지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십일조는 레위 지파의 권리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레위가 태어나기 전이었고, 멜기세덱의 경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바치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행위(7절)이기에, 아브라함의 십일조 역시 명백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6절)도 아니고, 족보 자체도 없는 인물(3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기에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온전히 섬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7일(수) 찬 488장 히 7:11-19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통해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설명합니다(11절). 예수님께서서는 꺼지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뤄집니다. 만약 한쪽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파기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언약 파기의 위험이 없는 영원한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스스로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됐다고 공언하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또한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간구하십니다. 이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구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교제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릴 때 참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28일(목) 찬 304장 히 7:20-28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하는, 더 우월한 제사장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만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시 110:4). 예수님은 혈통이나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지니신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고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또한 다른 제사장들과 달리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기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악과 더러움이 없고 죄와 상관없는 거룩하신 분,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희생 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대속(代贖)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형편이 어떠하든, 언제나 나를 위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